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 2008 Edition

Summary in Korean

경제정책 개혁

경제성장 목표 - 2008 년도판

국어개요

GDP 와 복지는 별개사항이다. 하지만 높은 생산성과 고용률은 복지 향상을 위한 여타 활동에 자원을 제공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복지 부문의 이해가 특별히 걸려 있지 않는 이상 생산성과 고용률을 저해치 않는 것이 중요하다.

2007 년도판 *경제성장 목표*에서는 생산성이나 고용률 하락에 맞서기 위한 5 대 우선 정책사안을 유럽연합과 각 OECD 회원국별로 제시했으며 2008 년판에서는 당시 제시된 사안의 진전도를 검토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컵안의 물이 반이나 남았다거나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1 년이 구조정책을 이행하기에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007 년도 우선 정책사안의 거의 3분의 2가 개선 조짐을 보인 것은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가 그리 크게 실질적인 개선은 아니며 고용시장규제 같이 민감한 분야는 더 더디게 개선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활발한 경제활동은 구조조정 비용을 줄임으로써 개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지난 보고서에서 논했듯 경기가 좋을수록 개혁의 시급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는 바다.

동 보고서에서는 고용률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정책과 요인을 5 개 장에 걸쳐 별도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 목표**에서는 고용 문제와 관련해 근로자 수에 중점을 두었을뿐 근로자 근로시간은 덜 중요시했다. 이를 보충하고자 동 보고서에서는 국가에 드러난 큰 격차와 국가마다 간혹 달라지는 근로시간 추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검토 과정에서 새로이 제공된 근로시간 데이터는 국제비교가 보다 쉬운 바 유럽보다 미국이 연평균 근로시간이 훨씬 많다는 양식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차이는 무려 15%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절반 이상이 다른 국가보다 많은 미국의 연간 근무일에 기인하며 나머지는 더 많은 주당 근로시간에서 비롯된다. 주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대체로 여성의 근로시간을 반영하며 한계세율이 이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무시간 규제와 같이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방안들이 확인된다. 근로시간과 고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모두 염두에 두어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근로시간이 원래 적은 일부층의 노동참여율을 낮추려는 정책은 평균 근로시간을 높이는 경향은 있으나 그렇다고 바람직한 정책은 아닌 것이다.

인적자본 축적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별도의 2 개 장에서는 OECD 교육국과 공동작업으로 도출한 초·중·고등교육 투자에 관한 분석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첫번 조사에서는 PISA 기록을 토대로 전체적인 학교 제도와 각 학교마다의 효율성을 계량화한다. 결과적으로 각국의 학교들은 국내의 상위권 성과를 따라갈 때, 국내 학교 제도는 국제의 상위권 성과를 따라갈 때 실질적인 효율성 증진을 보게 됨을 알 수 있다. 더 잘 훈련된 젊은층의 고용과 생산성 증가 그리고/또는 저축비용과 잇따른 세금인하는 총경제 활동에 이익이 된다. 아울러 동 보고서에서는 이용자 선택, 경영 자율성과 책임, 효율적인 학교 규모, 그리고 이른 시기의 능력별 학업 편성 방식 차원에서 효율성을 늘리는 정책 도구를 몇 가지 명시한다.

고등교육에 관한 장에서는 고등교육 투자의 주요 원동력의 하나인 투자에 따른 개인수익의 추정치를 공개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잇따른 수익 추정치는 대안 투자에 비해 높은 편이며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높은 수익과 비교적 낮은 졸업률이 상존하면 장래 학생은 자금난과 리스크 우려로 장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학생의 소득과 가용 유동자산이 고등교육 투자를 좌우하는 또 다른 요소임이 드러난다. 교육기관의 혁신 범위와 유연성이 3 번째로 중요한 요소다. 이에 더하여 고등교육 분야의 정책 도구는 공공재정 압력, 학생의 국제이동 증가 그리고 주로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지원 감축을 바라는 여론 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각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확대, 등록금 충당에서 학생 역할 강화, 자금난 해소와 고등교육 투자의 위험 감소 등에 적합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동 보고서의 2 개 장에서는 외부개방이 경제활동을 이끄는 데 기여한 역할을 다룬다. 경제지리에 관한 장에서는 국제 무역에 있어 국가간 거리가 여전히 중요한 결정요소임을 알 수 있다. 사실상 경제활동이 왕성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는 그 지역의 인접국보다 무역활동이 부진하다. 따라서 먼 거리의 국가는 무역활동에서 오는 특수화, 규모 경제 개척, 경쟁 압력에 의한 이익들을 덜 누리게 된다. 따라서 GDP에 미치는 영향도 잠재적으로 상당하다.

상기 장에서는 천연자원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자원이 풍부한 OECD 국일수록 GDP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저개발국의 풍부한 자원 여건이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과 대립하는데 한편으로는 OECD 국가가 일반적으로 건설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간의 경제 성과를

비교할때 국가 간의 거리와 천연자원이 미치는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정부는 이 2 개 요소에서 유리한 입장이든 불리한 입장이든 이를 부적합한 정책의 빌미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다. 실제로 국가 간의 거리와 천연자원 수준이 경제성장 목표에 제시된 우선 정책사안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방을 다룬 장에서는 OECD 무역농업국에서 실시한 분석작업에 기초하여 서비스 무역에서 국내 시장 규제가 기여하는 역할을 검토한다. 그리 놀랍지 않게 제한적 규제는 서비스 교역을 저해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또한 양국의 시장 규제 구조가 매우 상이하면 국가 간의 서비스 교역 흐름도 줄어든다. 각국이 국내 규제를 OECD 국의 가장 덜 제한적인 기준에 맞춘다면 양국 간의 서비스 교역은 평균 2 배로나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상품무역처럼 서비스 무역 확대 또한 GDP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의 여러 별도 장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는 다음 판 *경제성장 목표*의 우선 정책 사안을 확인키 위한 분석근거로써 역할이 크다. 결국 건전한 정책 권고는 되도록이면 확고하고 포괄적인 분석에 기초해야 할 바다.

© OECD 2008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